

‘산책·사색’ 광양 4대 산성 각광... ‘늦가을 정취’ 가득

마로·불암·중흥·봉암산성 등 탁 트인 조망과 수려한 풍광 역사와 마주하는 사색 공간

광양시가 늦가을 정취를 감상하며 산책과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적합한 광양 4대 산성을 추천해 주목받고 있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이 자랑하는 4대 산성으로는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 등 백제시대에 축성된 석성(石城)과 고려시대에 쌓은 토성(土城)인 중흥산성이 있다.

이 곳들은 층층이 쌓인 역사의 쉼과 마주하고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사색 공간으로 탁 트인 조망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마로산성(사적 제492호)은 광양읍 북쪽 해발 208.9m의 마로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피식 산성으로 말안장처럼 가장자리는 높고 가운데는 낮은 마안봉 지형에 자리 잡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성벽, 망루,



광양시가 층층이 쌓인 역사의 쉼과 마주하고 내면을 만날 수 있는 사색 공간으로 탁 트인 조망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광양 4대 산성을 추천한다. 광양시 제공

건물지, 우물터, 집수정 등이 확인됐으며 산성 내에서 마로(馬老), 관(官), 군역관(軍易官) 등의 글씨가 새겨진 수키와, 토기 등이 출토됐다.

불암산성(도지정기념물 제177호)은 비촌마을 불암산 남서쪽 해발 231.5m의 봉우리를 긴 사다리꼴로 테를 두르듯 둘러싸는 협축식 석성이다.

호남읍지(1895), 광양읍지(1925) 등에 ‘현 동쪽 50리에 위치한 성으로 500척이며 성내에 우물이 1개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지난 1998년 순천대박물관 정밀 지표조사를 통해 600년 무렵 축조된 백제시대 산성으로 확인됐다.

문지(門地), 건물터, 우물 등의 발굴이 이뤄졌고 기와류(격자문, 무문, 승문, 선

문), 토기, 어망추, 석환 등이 출토됐다.

불암산성 한켠에 놓인 벤치에 앉으면 수려한 억불봉과 맑은 수어호의 풍광에 빠져 산명, 물명 등을 즐길 수 있다.

진월면 신아리 해발 170m 고지에 자리한 봉암산성(문화재자료 제263호)은 둘레 약 100m, 외벽 높이 90cm 소형 산성으로 ‘신아리 보루’로 불린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에 적합한 요새로 산성의 남쪽 일부는 허물어졌지만 대체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섬진강, 하동군, 진월면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

산성의 이름인 ‘봉암’은 별들이 모여 있는 형국에서 유래했다. 산 정상에 호랑이 얼굴, 섬진강으로 내리뿜은 바위들을 발톱으로 보아 ‘호암’으로도 부른다.

중흥산성(전남도 기념물 제178호)은 6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계곡을 활용해 4km를 돌아가며 쌓은 포곡식 산성으로 고려시대 축성된 광양 유일의 토성이다.

중흥산성 내 자리잡은 중흥사는 삼층석탑(보물 제112호), 석조지장보살반가상(전남도유형문화재 제142호) 등을 품고 있으며 사찰의 이름은 중흥산성에서 비롯됐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 4대 산성은 한때는 치열한 격전지였지만 이후 시간이 쌓이면서 현재는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의 편안한 안식처로 각광받고 있다”며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광양 4대 산성을 찾아 한가로운 산책과 사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수영장·119센터, 합동소방훈련 실시

최근 광양수영장에서 광양읍 119센터와의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훈련은 화재가 발생한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경보기 작동, 119 신고, 이용객 대피 유도, 화재 진압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소화기와 소화전 작동법을

익히고 자위소방대 담당별 임무를 수행하며 인명 피해와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박순욱체육과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봉강면사무소, 동절기 경로당 안전점검

광양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봉강면사무소 직원들이 동절기를 맞아 봉강면 전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안전점검표를 따라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봉강면사무소는 이날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로부터 후원받은 물품(백미)을 전달하고 2025년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한 곳과 물품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활동 또한 펼

쳤다.

내동경로당 회장은 “면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잊지 않고 경로당을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지원 중인 냉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냉난방비 잔액을 식사 제공을 위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운영 중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농업인 대상 내달 스마트폰 등 디지털 문해교육

광양시가 내달 3일과 10일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인터넷, 유튜브 등 일부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가짜 영농정보(락스, 소주 등 검증되지 않는 병해충·잡초 방제법)가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광양시는 가짜 농작물 방제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들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한 영농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농업정보 제공서비스 ‘농사로’의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며, 농장마다 다른 지형·작목을 고려해 30m×30m 단위로 기상정보

를 예측해 알림톡(카카오톡), 문자메시지(SMS), 웹 포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정보서비스’의 이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법과 키오스크 활용법을 안내해 농업인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함으로써 디지털 기기와 키오스크 사용의 불편함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은 농업인교육관 2층 강당에서 오는 12월 3일, 10일 2회 진행된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각 회당 교육생은 40명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은 12월 3일과 10일 중 수강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광양시 기술보급과(061-797-3637)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 관계자들과 광양읍119센터 직원들이 최근 광양수영장에서 합동소방훈련을 펼쳤다. 광양시 제공

‘시골농부, 도시 소비자를 품다’ 팜파티 성황

농가·소비자 연결... 직거래 활성화

광양시는 지난 22일 광양사라실예술회관에서 ‘시골농부, 소비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팜파티를 개최했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해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행사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와 (사)한국여성농업인광양시연합회는 지역농산물을 주제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마련했으며 소비자, 농업인 단체 회원 등 250여 명이 참가비 1만 원을 내고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체험에 참여했다.

행사는 기념식, 체험활동, 점심 식사,

소통의 시간, 버스킹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소비자들은 표고버섯·토란대·고사리·잡곡·마·애호박·양상추·감말랭이 등 품목별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는 등 현장에서 생산 농가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었고 샐러리·양상추·샐러드상추 등 모종 나눔 행사까지 열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농가에서 직접 준비한 건강식 뷔페 점심 식사는 양상추, 고사리, 표고버섯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광양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구이와 들배 식혜를 간식으로 준비해 시골 맛과 농산물 홍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체험행사로는 농산물 가루를 이용한 EM비누 만들기과 고무신 던지기, 훌라후

프 돌리기 등 간단한 게임이 운영돼 참가자들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농산물 세트를 선물로 받은 체험행사 참가자들은 행사의 풍요로움을 만끽했으며, 행사 마지막 순서로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가을 소풍 같은 분위기 속에서 팜파티가 마무리됐다.

정인화광양시장은 “팜파티는 농업인과 소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자리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농부들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